

## 한국 문화에 대한 日帝의 視角\*\*

박현수\*

### 1. 序 言

조국 일본이 한국을 법률상의 식민지 조선으로 만들고 국가주의와 침략주의에 저항하던 幸德秋水를 처형하는 것을 본 石川琢木이, “지도위 조선국에 검게검게 먹칠하며 추풍소리 듣는다”라고 읊은 것은 1910년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지도상에나 남아있을 뿐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어있었다. 그가 읊은 것은 시대의 희생자가 된 한국 민중이 마지막 일격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개탄이다. 일본은 이미 명치유신 벽두부터 제국주의의 길로 치달아 왔으며 중국 중심의 華夷체제를 무너트리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

\*영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 글은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가 교육부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 영역연구 1차년도 지원과제로써 수행한 “문화다원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작성된 것이다.

어느모로 보나 일본의 제국주의는 특수한 제국주의였다. 일본은 유일한 비유럽 식민주의 국가였다. 일본은 유일하게 단시일 내에 피침략 국가에서 침략 국가로 전환하였다. 다른 제국들이 멀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민족을 식민지화한데 비하여, 이웃 민족의 나라만을 식민지로 만든 제국은 일본 뿐이었다. 일본은 식민지로 만들기 전부터 그 민족들과 문자가 서로 통했다. 제국주의의 일반적 성격에 첨가된 이러한 특수성은 일제의 식민지 문화 연구와 논의에도 특수성이 나타나게 하였다.

북해도, 小笠原, 琉球를 領有한 다음 대만, 한국, 만주, 중국, 태평양 제도를 침략하면서 일본인들은 민족을 넘어서는 아시아 또는 동양이라는 假想의 공동체를 확장해 갔다. 동시에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 지식 계급의 전통적 인식은 근대적 '동양학'으로 변모하였으며, 그 대상도 확대되었다. 역사적 배경과 학문 사이의 상호 규정성이라는 일반적 원리는 일본 역사의 특수성 속에서 특수한 학문 형태를 낳았다.

일제의 식민지 문화 연구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국의 경우다.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체제 속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던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對極的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양국의 문화는 동일한 문자인 한자로서 소통이 가능하였다. 공간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예전부터 양국 사람들은 서로 상대국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으며 상대국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의 지도를 그리고 한국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하게 하였으며, 한국인은 일본인이 측량하여 작성한 한반도 지도를 이용하고, 나아가 일본이 규정한 한국 문화 인식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일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떤 시각에서 이를 연구하였고, 연구 조사 결과 얻은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일제가 규정한 한국 문화가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논의에 영향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일제의 연구와 논의는 몇 개의 프리즘으로 分光해 볼 수 있다. 가장 유용한 프리즘은 '文裝的武備論'에 입각한 것으로부터 '內地延長主義'에 입각한 것으로 연속되는 스펙트럼을 분광하는 프리즘이다. 과학적 식민통치를 주장한 後藤新平은 식민통치의 요체로서 사회나 문화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여, 이러한 조사를 문장적무비라 하였다. 식민지 또는 적국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文을 가장한 武로서, 효과적 식민통치의 토대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 문장적무비론이다.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잠재적 또는 현재적 식민지를 연구하는 이러한 관점은 제국주의적 학문의 일반적 특성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얼핏보아 이러한 관점과 모순되는 것이 내지연장주의인데, 이러한 생각은 식민지 전통문화 연구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조선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미 일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연구의 틀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 두 관점은 差別과 同化라는 모순되는 식민지 통치정책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프리즘은 문헌에 입각한 연구와 실태 조사에 입각한 연구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분광해 준다. 침략 논의 당초에 문헌에 의해 파악되던 한국 문화는 침략작전이 실현되면서 바로 현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긴급 상황을 벗어나면서 다시 문헌 위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삼일운동이라는 식민지의 거대한 저항은 실용주의적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지만 문헌에 의한 역사적 연구와 단절된 한국 문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두 방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국측의 문화와 식민지측의 문화 사이에 보이는 문화적 공통성, 즉 '同文性' 때문이다. 사회학적 연구나 인류학, 민족학적 연구보다 역사학적 연구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일제의 동양문화 연구의 한 부분이지만 이를 위한 핵심이기도 한 한국 문화 연구는 식민지통치사의 추이에 따라 변화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 조선 통치의 역사에 조응하는 문화 연구의 역사는 다

음과 같이 시대구분할 수 있다.

제 1 기 (1868-1894) 명치유신 직후부터 나타난 식민주의는 조선에 대한 침략적 조사와 정탐을 부추겼다. 參謀本部의 兵要地誌 조사라는 군사적 정탐과 무장 상인들의 조선 시장조사로 특징을 이룬다.

제 2 기 (1894-1905) 청일전쟁 이후 노일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상인들의 內陸 시장 조사가 강화되는 한편 전문적인 조사단체들이 출현하여 중국과 조선 등의 지역조사가 다양해지는 시기였다.

제 3 기 (1905-1919)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이 확립되어 통치당국이 통치체제의 확립을 위해 법관행과 조선의 전통적 제도를 조사하는데 열중하였다. 조선에 앞서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의 조사 경험이 참조 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조사를 주도하였다.

제 4 기 (1919-1931) 조선 민중의 저항에 대처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보다 철저하고 능률적이며 세련된 통치를 위해 종래의 옛 문헌 연구에서 나아가 당시의 '실태'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조사를 중요시하게 된 시기였다. 조선의 촌락에 대한 광범한 조사가 시도되어 조선총독부 '調査資料'로서 간행된다.

제 5 기 (1931-1945)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으로 후방이 된 식민지 조선의 치안확보와 수탈이 요구되어, 이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조화시키는 아카데미즘이 출현하지만 침략전쟁은 이의 성장을 제약했다.

위의 5개 시기는 크게 보아 침략기와 식민 통치 확립기의 두 시대로 정리될 수 있다. 침략기란 위의 제1기와 제2기이며, 제3기 이후는 통치 확립기로 통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征韓論' 과 한국 문화

근대 일본의 한국 문화 논의는 명치유신과 더불어 돌연히 나타난 것

이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막부 말기 이전의 비교적 안정된 시대와 달리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로 접어든 만큼 한국의 문화도 침략적인 모습을 띄고 이야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화에 관한 적실한 발언은 실증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실증적인 자료란 처음부터 침략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실용적 정보였다.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에 관한 자료와 자연 및 인문적 地誌 자료였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 자체로서 중요한 정보였지만 새로운 정보의 획득을 위한 기본적 도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征韓論이 일어나던 명치 벽두에는 이러한 기본 자료조차 마련되어있지 못하였다. 정한론자들은 급한대로 막부 시대의 자료들을 들추기 시작하였다.

徳川幕府 시대에는 국교와 무역 때문에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 조선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아 新井白石과 雨森芳洲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관심의 예를 볼 수 있었다. 新井은 그의 저서 「東雅」 등에서 일본어의 어원을 따지기 위해 한국어를 이용한 바 있고 한글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어를 실제로 이용할 만큼 여기에 조예가 깊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와 정치적, 학문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던 雨森은 한국의 언어에 능숙하여 그가 만든 한국어 학습서는 당시에 널리 이용된 듯하다.

한국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對馬藩에서 일한 雨森은 한국어를 습득하여 쓸만한 학습서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韻略諺文」, 「酬酢雅言」, 「全一道人」, 「履衣椀」 등을 편찬하였다. 이들은 문자로부터 단어, 그리고 간단한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을 거쳐 실용적 언어를 습득시키는 학습서였다. 이들과 함께 읽히던 학습서로는 「交隣須知」와 한국어 역관 小田管作의 「象胥紀聞拾遺」가 있어서 정한론의 대두와 더불어 널리 이용되었으며 새로운 실용 학습서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명치 초기의 언어 학습서 출판이 양적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어를 습득한 일본인은 많지 않았다. 그것은 언어 학습이 워낙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데다가 한국에 관한 정보 자

료는 대개 한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진출, 또는 침략을 위해 당장 필요했던 것은 地圖로 마무리되어 표현되는 地誌 자료였다. 한국 지도도 명치 초기에 작성된 것들은 德川 막부 시대의 것들의 연장선 상에서 시작되었다. 정작 정한론은 대두되었지만 아직은 한국을 답사한 바 없는 실정이라 막부시대에 한국에서 구해온 옛 지도들을 베끼게 되었다. 「朝鮮國細見全圖」(1873 영남대 박물관 소장)는 그러한 지도들 중에서 가장 거창하고 화려하며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작품이다.

대마도 출신의 작가 染崎延房(爲永春水二世)이 石塚寧齋로 하여금 제도케 하여 간행한 이 지도는 임란 당시에 일본에 유출된 지도가 대마도 宗家에 소장되어오다가 재활용된 것으로 보인다(朴賢洙 1998: 153). 이 지도의 보충서로서 染崎는 「朝鮮事情」(1873)이라는 2책의 팜플렛을 내었다. 이는 한국의 역사, 풍속과 인구 및 경제 통계, 그리고 도로 이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저자가 앞서 언급한 대마도의 역관 小田管作(幾五郎)의 「象胥紀聞」(1794)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小田의 이 책은 그가 조선의 역관을 인터뷰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결국 染崎는 정한론이 일어나자 80년전의 자료를 재활용한 셈이다.

이 무렵 한국 사회, 문화에 관한 자료의 보고는 대마도였다. 東條保의 「朝鮮誌略」(1875 名古屋 四方朝鮮文庫 소장)이라는 팜플렛도 서문에 의하면 편자의 “친구 아무개가 일찍이 대마도에 갔다가 책 한 권을 얻었는데 그 책은 조선의 사정을 기록한 바, 상당히 상세하여 이를 國史와 洋人이 기록한 것과 참조, 고찰하여 편찬한 것이 이 책”이었다. 여기에 제시된 한국의 호구수는 寬政 연간(1789-1803)에 조사된 것이다. 이에 결들인 지도는 조선 8도의 경계를 대강 표시하고 거기에 역대 왕조의 중심지를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한 장의 지도가 通時的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국세견전도」가 조선 초 鄭陟과 梁誠之의 지도에서 연유한다

면 민간에서 제작된 다른 지도에는 이보다 조잡한 다른 판본의 조선 지도를 이용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林子平 (1738-93)이 그의 저서 「三國通商圖說」에 실은 한국지도를 이용한 것도 많았지만 모두가 시대착오적인 전근대적 지도에 머물었다. 이러한 지도들이 유포되고 있을 때 근대적 기술에 의해 전혀 새로운 한국지도인 「朝鮮全圖」(1876)를 준비한 것은 일본의 육군 참모국이었다. 참모국의 한국 지도는 일본 최초의 脫神話的 지도였다. 그것은 작성 당시의 한반도에 대한 자연, 인문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충실하려 한 지도였다.

강화도사건 당시의 해안선 실측 결과를 반영한 이 군사 지도가 제작된 뒤에도 대체로 1894년 무렵까지는 부정확한 전근대적 한국 지도가 간행되었다. 이러한 지도들의 특징은 공식적인 내용에 덧붙여 역사적 내용을 첨가했다는 점이다. 지도의 欄外에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지도상에는 임란 당시의 古戰場을 표시하는 한편 그곳에서 있었던 전투의 지휘자 등을 기록하는 식이었다. 임란과 더불어 부각되는 역사적 내용은 조선 정부에서 여러 차례 파견한 通信使였다. 지도에 표현된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 일본인들의 한국 인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념을 요약된 형태로 보여준다.

東條保의 「朝鮮誌略」에서 서양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듯이 많은 지도들이 서양에서 제작된 海圖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점을 스스로 강조한 느낌을 준다. 전통적인 한학자들의 관심은 통신사 관계 기록으로 나타난다. 또한 朝鮮征伐이라는 신화적 역사가 중요 항목으로서 언급되는 것은 「日本書紀」 등에 나타난 일본식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여준다. 흔히 근대 일본의 세계 인식은 일반적으로 '漢學'의 전통, '國學'의 일 전통, '洋學'의 전통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가지 전통의 독자성은 그것들이 성립되던 시기부터 의식되어 왔다.

명치유신과 더불어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일본은 우선 이웃나라 한국을 식민화의 대상으로 삼고 즉각적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섰다. 지도작성은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준비였다. 여기에

이미 나타나는 세가지 세계관은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한국 문화 인식을 지배하였으며 韓國觀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 천황제 국권파가 주류를 이루는 근대사를 통하여 세 개의 세계관은 통합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 3. 자민족중심주의의 기원

#### 1) 한국문화에 대한 '國學'的 視角

전통시대 일본의 경우,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적 전통들 중에서 외국 문화 이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漢學이었다. 한학 자체가 중국적 세계관인데다가 일본의 한학은 한국을 매개로 성립된 만큼, 이 전통은 中國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상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국과 조선의 유학과 유학자들에 관한 정보였다.

幕府時代 일본의 한학자들이 한국의 학문과 학자들에 대해 정보를 얻는 효과적인 통로는 朝鮮通信使였다. 쇄국체제 아래에서 유일하게 국교를 유지하던 조선 정부가 십여차례에 걸쳐 파견한 통신사 덕분에 林羅山 등의 일본 주자학이 형성되었으며 일본의 주자학자들에게 李退溪는 존경의 대상이되었다. 한국 朱子學의 학통을 이어받은 일본의 한학자들은 지배계급의 교사가 되어 주자학은 지식층의 교양이 되었다. 한국 학자나 그 자손들 중에는 大名들의 藩校의 교수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자학 뿐만아니라 實學 역시 일본실학을 탄생시켰다. 일본의 실학과 특히 安藤昌益의 학문체계는 바로 한국의 실학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旗田 1969: 229). 그러나 일본 한학자들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학문과 학자들에 집중된 것이어서 현실 인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이는 한정된 지식 계급 만의 관심이었다. 마찬



가지로 중국에 대한 관심도 「十八史略」이나 「資治通鑑」에 의존하는 것으로서(矢島祐利·野村兼太郎 編 1979: 686-87) 실증적인 것은 아니었다. 외국 문화에 대해 호의적이고 이를 존중하는 전통은 결국 막부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명치 시대 이후의 한국 문화 연구에는 맥을 잇지 못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한학적 전통은 임란과 德川幕府의 성립에 뒤이어 이룩된 상대적 안정 속에서 이른바 國學이라는 反射像을 낳았다. 한학적 전통을 능가하는 힘으로 한국 논의에 작용하여 일본의 自民族中心主義를 조장하게 되는 이 국학의 전통은 대체로 1700년 무렵에 일기 시작한 일본 古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古事記」, 「日本書紀」로부터 「萬葉集」, 그리고 「伊勢物語」와 「源氏物語」등에 집착하다 보니 국학자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日本中心主義를 주장하게 되었다. 막부시대 말기의 대표적 국학자인 佐藤信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皇大御國은 大地에 最初로 이룩된 國家로서 萬國의 根本이다. 따라서 능히 그 根本을 헤아려 보면 全世界가 모두 州縣이 될 것이며 萬國의 君長이 모두 臣僕이 될 것이니.... 世界萬國의 蒼生을 平安히 함은 最初부터 皇國에 主된 者の 要務임을 알게된다....(矢島祐利·野村兼太郎 編 앞책: 488)

한국이라는 곳은 신화적인 고대사를 史料批判 없이 신봉하는 국학자들에게, 태고적에 일본의 신들이나 천황이 다스리던 곳이며 일본의 신이 그곳에 가서 신이 되거나 왕이 된, 그런 곳에 지나지 않았다. 旗田巍(1969: 230)에 의하면 江戸 시대의 한학자들도 일본 건국신화의 해석에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는 특히 국학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명치유신 이후의 조선 침략은 일본 건국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며 當爲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오류에도 불구하고, 국학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他民族中心主義를 벗어나고 중국적 세계질서를 거부하게 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국학은 유교의 형식주의와 도덕주의를 배격하여 일종의 人本主義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矢島祐利·野村兼太郎 編 앞책: 480-89). 中根千枝(Nakane 1980: 284)는 막부 시대 국학자들의 연구 활동에서 人類學的, 民俗學的 연구의 맹아를 찾는다.

인류학 또는 민속학적 업적을 남긴 국학자에는 菅江眞澄과 屋代弘賢이 있다. 菅江眞澄(1754-1829)같은 국학자는 고전의 틀을 벗어나 직접 농촌 실태와 대면하였다. 그는 信州, 東北, 北海道 등지의 농어촌을 답사하여 민중의 생활관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 손으로 삽화를 그려넣은 방대한 기행집 「眞澄遊覽記」(1966)을 간행하였다. 조선 정부로 보내는 막부의 국서 작성을 담당했던 또 한 사람의 국학자인 屋代弘賢(1758-1841)은 비슷한 시기에 「風俗問答狀」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실생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채 각 지역에 질문지를 발송, 수집하여 물질문화와 세시 풍속, 그리고 관혼상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Nakane 앞글: 284). 이 국학자들이 살던 시대는 농촌과 도시의 분화되고 이른바 町人文化라는 도시 상공인의 下位文化가 형성된 시대로서, 상업의 발달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지역 풍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대였다.

中根에 의하면 지방 풍속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한학자들과 국학자들은 대조를 보인다. 한학자들이 농촌 풍속을 설명할 때는 주로 중국의 문헌 자료에 의거하는 데 반하여 국학자들은 이들을 일본 古代風俗의 반영으로서 다루는 경향이 있어, 심층적인 관점은 국학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조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菅江眞澄도 “역동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민중의 생활을 파악하려는 것은 아니고, 민간전승을 통하여 옛 생활

관습을 찾아내려는 後向的 자세”를 보였다고 家永三郎(1979: 214)은 지적한다. 家永에 따르면 근대 일본 민속학 성립에 크게 기여한 柳田國男은 바로 菅江眞澄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이다.

1910년에 한국을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村井紀 1992: 19)했던 것으로 보이는 柳田은 1920년대에 들어와 활발히 民俗學을 구성해 나가지만 그는 결코 한국 문화를 직접 연구하여 발표한 바 없다. 흔히 그를 ‘세계의 지식인’, ‘세계사적’, ‘국제적’ 인물로 내세우지만 그의 업적은 사실 그러한 형용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村井紀 앞책: 22). 그가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관심이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이 일본의 이웃인 琉球 지역을 포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제적이라는 말은 제국주의적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國學者로서의 그가 주도한 민속학은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기를 거부하였다. 그와 그의 가까운 유력자, 예컨대 植民政策 학자 新渡戶稻造 등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삼일운동 이후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되며 한국은 일본의 민속학 연구의 대상 지역에 편입되었다. 뒤에 이야기할 小田內通敏의 한국 촌락사회 연구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 민간 주택, 특히 노동자 주택을 조사하여 독특한 기여를 한 今和次郎의 이른바 住居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할 것이다.

국학적 세계관의 영향은 식민지 문화의 조사나 연구보다 대중의 관념과 식민정책에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였다. 일본 중심의 세계 인식, 이민족, 특히 인접민족을 貶下하는 日本民族中心主義는 이 국학적 세계관에 의해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침략은 이러한 국학적 시각에서 볼 때 잃었던 고향을 찾아가는 일종의 歸郷이었다. 일제시대를 통하여 일본 민중의 한국 문화 인식은 신화적 고대사 인식을 바탕으로하며, 이러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학문의 세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征韓論은 물론이고 이를 떠나 생겨날 수 없었

던 金澤庄三郎(1913 참조)의 韓日 兩國語 同系論도 국학 전통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 2) 타민족중심주의에서 자민족중심주의로

오랜 기간 일본의 학문을 지배하던 漢學의 전통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國學은 근대 이후 동방으로 진출한 유럽 문화의 자극으로 생겨난 洋學과 함께 명치유신이라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얼핏보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학, 국학, 양학은 개개인에게 공존하게 되어, 예컨대 한 사람이 고대사에 있어서는 국학적 관점을 가지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洋醫를 찾고, 취미로는 한시를 읊는 경우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鼎立하고 있던 세 전통은 차츰 양학의 판정승으로 기울어 갔다. 명치 정부의 제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양학에 바탕을 두게 된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문화에 직접 접하게 된 일본은 쇄국 체제 아래에서도 '蘭學', 즉 네덜란드 문화의 학습을 하나의 전통으로 키웠다(井上清 1965: 65-66). 조선왕국과 달리 네덜란드는 일본과 정식 국교관계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1641년 이래 長崎에 商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조그만 바늘구멍을 통하여 네덜란드의 문화를 들여다 보고 나아가 유럽의 문화, 그리고 세계를 엿보려한 것이다. 난학은 각종 기술, 예컨대, 포술, 의술, 항해술, 曆法 등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학이 서양의 학문, 즉 洋學으로 확대되면서 그 내용도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인식의 지평으로 확장되었다. 명치유신에 따른 文明開化 운동은 이러한 인식을 국학적인 인식 또는 한학적인 인식보다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征韓論이 대두되던 당시에 일본에서 제작된 韓國地圖들은 대체로 양학적 지리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지도가 영국인들이

작성한 海圖의 한반도 부분을 참고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세계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양학의 일부를 이루는, 지리에 관한 지식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일본 문화와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요소였다. 일찍이 朝鮮通信使에 대한 儀典이 너무 거창하여 소요 경비가 막부에 과중한 부담이 되니 이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막부에 건의한 바 있는 新井白石은 일본에 잠입하려다 체포된 이탈리아 신부 시도티(G. Sidotti)와의 담화를 통하여 서양의 문화를 파악하고 이를 「西洋紀聞」(1715)이라는 책으로 저술하였다. 그는 외국의 역사, 지리, 풍속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서양의 과학에 대한 경탄 뿐 아니라 서양에 대한 신뢰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양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를 보는 시야가 확대되어, 林子平의 경우 「三國通覽圖說」(1786)을 집필하고 거기에 한국 지도를 삽입할 수 있었다.

막부시대 양학자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우선 유럽의 軍事技術 등 막부와 각 藩이 요구하는 실용적 문화를 수용하는 일이었다. 대표적 양학자이자 文明開化論의 기수 福澤諭吉이 소년 시절에 나가사키에 가서 배우려한 것도 포술이었다. 막부가 서양 문화 수용을 위해 세운 蕃書調所の 목적도 군사기술 등의 수용에 치중되어 있었다. 예컨대 이곳에서 강의하던 圖畫라는 과목만 하더라도 군사기술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은 군사기술의 기본인 製圖를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家永三郎 앞책: 219). 洋學의 한계는 유럽 문화의 이러한 선택적 수용에서 비롯하였다. 일찌기 국학자들은 중국이 기술면에서는 앞서 있지만 정신적인 것은 일본이 우수하다하여 ‘和魂漢才’를 주장한 바 있었는데, 양학자 佐久間象山(1811-64)은 “東洋之道德, 西洋之藝”라 하여, 도덕과 윤리는 유교에 의존하고, 기술은 양학에 의존할 것을 주장했다(家永三郎 앞책: 220). 유럽의 압박 앞에서 일본은 ‘和魂洋才’라 하여, 중국의 中體西用, 조선의 東道西器論과 동일한 수용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화의 選擇의受容이라는 것은 한계가 뻔하였

다. 西洋之藝에는 西洋之道德도 묻어올 수 밖에 없었다. 양학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는 눈도 제공한 것이다.

일본의 계몽기는 바로 한국 침략기에 해당한다. 이무렵 일본에 소개되어 널리 유행한 사회 사조는 스펜서와 다윈의 진화론이다. 이는 自然法사상과 아울러 유럽志向의 지식인들에게 지배적인 사조가 되었다. 이러한 외래 사조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征韓論을 주장한 國權派와 더불어 이와 반대되는 진영에 있던 民權派까지 모두가 스펜서·루소등의 학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矢島祐利·野村兼太郎 앞의 책: 599-600). 스펜서의 유행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社會靜學」을 松島剛이 번역한 「社會平權論」(1881)인데 이 책의 제 6 장 「第一原理」에는 “듣건대 亞弗利加的 佛珠免(Bushman)族은 셋보다 큰 수를세는 것이 불가능하다”(加藤周一·丸山眞男 1991: 166)는 귀절이 나온다. 타민족을 왜곡, 비하하여 식민주의를 지원하는 이러한 내용은 일본에서도 침략주의를 부추겼을 것이다.

일본에 스펜서가 처음 소개된 된 것은 江華島條約보다 5년 이른 1871년이지만 그의 저서가 처음 번역된 것은 「權利提綱」 2책인데 이는 저자의 첫 저서인 *Social Statics*(1850)를 번역한 것이다. 그 뒤 1888년에 「斯氏教育論」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스펜서의 저술이 번역되고 편집되었다(山本芳明 1991: 424-27). 幕府時代에 실용적 기술에 한하여 수용이 인정되던 서양학문은 명치 이후 허용의 폭이 넓어져 일부 인문, 사회과학이 들어오게 되었다. 富國強兵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生産樣式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되자 명치 정부는 그러한 생산양식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르조아적인 학문에 한하여 수용을 허용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신흥국가의 지식인들에게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듯 했다. 특

히 국권주의자에 맞서는 自由民權主義者들을 부추기는 근거가 되었다. 스펜서의 자유주의는 그의 일종의 萬有進化論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콩트의 사회유기체설에 진화론을 적용했다고 평가받는 「社會學原理」은 그의 '萬有進化論'을 정리한 「綜合哲學의 體系」라는 방대한 총서의 한 부분인데, 이는 「社會學之原理」(1882)라는 제목으로 나온 바 있다.

그의 사회적 진화론이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 문호를 열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수용하는 단계에 있었던 일본의 경우, 스펜서의 사회학이 가지는 의미는 영국의 경우와 같을 수 없었다. 스펜서의 單線進化論은 脫亞, 歐化, 開化, 富國強兵을 표방하던 일본에게 일종의 未來像을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德富蘇峰같은 사람은 「將來之日本」(1886)이라는 책에서 스펜서의 설명들을 이용하여 武備社會에서 町人社會로의 이행을 주장했다(矢島祐利·野村兼太郎 1978에서 재인용).

그러나 스펜서의 선풍은 지나친 유행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일본의 학계는 아직 스스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감히 서양의 학설을 비판할 힘이 없었고 시대의 유행에 따라 서양의 우수한 학설을 그대로 모방하던 풍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스펜서의 유행이야말로 이러한 일본의 학풍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은 당시를 학문적 혼란기로 규정하고있다. 일본에서도 스펜서의 진화론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진화론이었다.

지식인 계급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진화론은 널리 보급되었다. 명치 초기 일본에서 다윈니즘의 전파에 열심이었던 사람 중에는 미국인 모스(E. S. Morse)도 있었다. 1877년 東京大學 동물학 교수로 취임한 그는 2년 남짓한 일본 체류 기간 동안 특히 體質人類學과 考古學 분야에서 크게 업적을 남겼는데, 그는 일본 농촌에서 중학생들이 헉슬리의 진화론 관계 글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보

고 일본에서 그토록 진화이 유행하는 것을 알았거니와 스스로도 동경 대학에서 진화론을 강의하였다(矢島祐利·野村兼太郎編 앞책: 581).

개화주의적 정치가나 재야 지식인들은 스펜서의 사상 중에서 특히 自由主義에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板垣退助는 「社會靜學」, 「社會平權論」이라는 두 가지 번역으로 나온 *Social Statics*를 “民權의 교과서”라고 하였으며 末廣重恭은 “이로써 저 王充의 ‘論衡’에 비할만하다”고 하였다(山本芳明 앞글: 424). 그에 의하면 당시 정치 연설의 연사들은 “기조(F.P.G. Guizot)나 밀(J.S. Mill)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스펜서의 假聲으로...”라고 할 만큼 스펜서의 대중적 인기는 드높았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영국 시민제급에 비교될 만큼 명치시대의 지식인들도 進化(文明開化)에 기울어 있었지만, 한국 또는 이웃나라에 대한 일본인 대부분의 인식은 진화론의 통속판이라 할만한 大衆的 自民族中心主義(川村湊 1993 참조)를 특징으로하고 있었다. 脫亞入歐를 주장한 대표적 양학자 福澤諭吉에게 있어서 당시 유럽의 문화가 開化된 것이었다면 일본의 문화는 ‘半開’ 상태였으며 한국의 문화는 野蠻 상태였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기본적 인접 문화 인식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래 사상인 사회진화론과 이의 동반자적 태도라 할 수 있는 유럽 中心主義가 일본중심주의로 반전되어 그토록 깊이 뿌리를 내린 데에는 막부 말기의 國學的 사고가 조성한 토양이 기여한 바 적지 않다.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양학적 전통과 국학적 전통이 자민족중심주의로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발원권을 가진 각 계급에게 해외 침략이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갓 형성된 일본 국민들 일반에게 해외 침략이 국민적 합의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875년의 강화도사건에 대응한 自由民權運動家들의 모호한 태도(山田昭次 1970: 117-41)는 그러한 사정을 보여준다.



#### 4. 침략기에 조사한 한국 문화

1874년 파리 外邦傳敎會의 선교사 달레(C. Ch. Dallet)는 당시 유럽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카톨릭 교회에 대한 두권짜리 커다란 책을 간행하였다. 항해용 해도에나 나오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유럽에 소개한 것은 하멜 이후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교회당이나 수도원의 서고에 소장되었을 뿐 이용도가 낮은 책이었다. 이 책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유럽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

한번도 한국에 와본 일이 없는 달레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도들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敎會史」(*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를 편찬한 것인데 여기에는 서론으로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개론이 실려있었다. 蘭學을 공부한 바 있는 榎本武揚은 명치유신 정부에 저항하여 싸우던 막부 해군의 총재였으나 유신 정부에 의해 特命全權公使로 임명되어 러시아에 근무하던 중 정한론 등 한국 침략 관계 사태를 주시하면서 한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 부분을 「朝鮮事情」(1876)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간행한 것이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 폼페 판 메르데르포르트(Pompe van Meerdervoort)로 하여금 출판된 지 1년 남짓한 프랑스어로 된 이 책을 네덜란드 말로 발췌, 번역시켜 이를 일본어로 重譯하였다. 서둘러 약 2주만에 원고를 만든 줄속 번역이었지만 워낙 한국 관계 문헌이 희귀했던 만큼, 이책은 거듭 인쇄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그가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은 이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천명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근황을 보건대 征韓案이 절박하게 되어 곧 양국간에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책이 비록 소책자에 지나지 않지만 征韓案에 조그만 도움도 못 줄 것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책에 붙인 그림 같은 것은 그 나라의 산하의 위치라든가 병영의 多少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있어 우리 海陸 장교들이 막사에서 참고로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못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인문지리, 역사, 국왕, 왕족과 궁정의 환관, 정부의 文武制度, 법정, 과거, 언어, 사회상태, 婦人의 형편, 가족, 종교, 性格, 오락, 주택과 의복, 학술, 공업, 상업 등이 설명되어 있었다. 특히 '政府'에 관한 내용 중에는 각 府郡縣의 위치와 서울로부터의 거리, 관할 面數, 수령의 위계, 관리의 숫자와 군사조직이 설명되어 있었다.

이처럼 그들의 관심거리가 될만한 서론 부분은 대체로 번역되었지만, 서론 중에서 언어에 관한 부분은 생략되었다. 원래 이 부분에는 문자, 특히 한글과 한국어의 기본적 문법, 그리고 한국어의 계통이 간결하면서도 요령있게 설명되어 있었다. 통속적이거나 歷史言語學的 설명까지 시도한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은 이 언어가 프랑스어에 의해 비교되고 설명되어 일본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 이 부분은 별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天主教 관계 자료라 할 수 있는 본론의 내용은 관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만큼 생략되었다.

대마도를 통하여 구하던 가까운 가까운 나라 한국의 자연이나 문화에 관한 지식을 먼 유럽을 통해 획득하려한 데에서 일본의 전통 학문, 즉 국학이나 양학의 한계가 노출된다. 이러한 점은 지도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木村恒七이 1882년에 작성한 「朝鮮全圖」의 경우 한반도는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있다(朴賢洙 1998: 155). 서해안선이 금강 하구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장항 부근으로부터 수평으로 동쪽으로 'ㄱ'자를 그리며 남서쪽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참모국이 1874년에 작성한 「亞細亞東部輿地圖」를 밑그림 삼아 저지른 착오다. 참모국은 그 지도에서 전통적 한국 지도보다 서양의 해도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민간 지도가 오류를 답습하였다. 영국 해군의 「일본 및 한국 부근 연해도」(1863)라든가 제정 러시아 아카데미의 민족학자 슈렌크(L.I. von Schrenck)의 지도 등이 그러한 오류의 근원이었다. 문명개화 시대의 脫亞入歐論이 간접적으로 초래한 시행착오의 한 예라 하겠다.

충분한 검토 없이 유럽 자료를 통하여 한국과 그 문화 및 실태를 보려한 것은 일본측의 정보 축적에 앞서 침략이 논의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적극적 침략을 시도하던 19세기 후반기는 세계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경쟁 시기로부터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일본도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곧바로 침략의 대상이 아닌 침략의 주체로 전환하였다. 미국의 제국주의 앞에 개항한 일본은 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 힘쓰는 한편 스스로 식민주의를 채택하여 선발 제국들에게 빼앗긴 바를 조선에게서 빼앗으려 하였다. 당시의 신문들은 옛 속담을 인용하여 “어제의 며느리가 오늘은 시어미”가 되었다고 사태를 평가하였다(山田昭次 1970: 앞글). 평행적인 역사의 길을 걷던 동아시아의 대등한 두 국가는 이제 20년의 時差를 만들면서 한쪽은 식민주의 국가, 한쪽은 식민지로 分極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분국화는 명치유신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명치유신은 바로 조선침략과 더불어 시작되었다(井上清1968: 170)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발전, 조선의 식민지화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사건은 이른바 征韓論이다. 또한 일본의 한국 문화 연구가 시작되는 것도 이 사건의 결과였다. 정한론이 처음으로 표면화 되는 것은 1868년 9월 명치천황의 정권이 반대파의 무력 저항을 진압한지 3개월 뒤인 12월이었다. 명치 정부의 木戶孝允은 征韓을 “當面한 二大急務”라

하였다. 그는 명치 정부에 반대한 내란이 끝나고 정부의 손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각 藩의 군사를 해외 침략으로 내몰아 구세력을 약화하고 천황 정권의 권위를 강화하려한 것이다.

자유민권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을 몰아치며 추진된 침략 작전이었지만, 작전을 위한 정보는 허술하였다. 정한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임란 당시의 자료들과 막부시대에 이를 다시 출판한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과 관계를 유지하던 대마도의 자료, 그리고 부산 왜관의 일본인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자료들이 소중하게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심각히 여기어 직접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 것은 군부였다. 군부의 조사는 주로 자연적, 인문적 지리에 관한 정보에 집중되었지만 이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東洋'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군부가 작성한 지도와 지지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1872년 명치 정부는 조선에 外務大丞 花房義質등을 使節로 파견하는데, 당시 일본정부의 참의, 육군 원수와 近衛都督을 겸하고 있던 西郷隆盛은 일행 속에 육군 중좌 北村重賴와 소좌 別府晉介를 수행시켰다. 이들은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모자를 쓴채, 당시로서는 외국인 왕래가 금지된 조선 내지에 들어가 제반의 사정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땅 위에서는 이들이 정탐활동을 하고 바다에서는 雲揚號가 해안 측량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의 압력에 굴하여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일본의 조사는 강화되고 그러한 활동의 성과는 '朝鮮全圖'(1876), 「兵要朝鮮事情」(1885)과 「朝鮮地誌略」(1889)등으로 마무리된다.

군부 내에서 인접국가의 지리와 군사를 중심으로 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주체가 된것은 參謀本部였다(村上勝彦 1981: 3-4). 육군 참모국이 모체가 되어 독립된 (천황 직속) 군령기관으로 발전한 참모본

부의 한국에 대한 공작은 방대한 지지 자료 「朝鮮地誌略」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지만, 참모본부의 활동은 조선 뿐 아니라 청국, 캄차카, 사할린, 만주, 태평양 제도를 포괄하고 있었다. 일본에 있어서 참모조직은 1871년 兵部省에 설치된 육군 參謀局은 처음부터 “機務密謀에 參劃하고, 地圖政誌를 편집하며, 아울러 間諜通報 등의 일을 관장한다”는 것을 임무로 하여 1874년, 7명의 장교를 청국에 파견하였으며 그 밖에도 많은 군인을 유학시켜 유사시에는 정보수집에 나서게 하였다.

참모본부는 특히 중국에 관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여 1879년부터 중국 각지에 장교들을 주둔시켜 내륙 각지에 여행시키는 한편 語學生이라는 이름으로 요원들을 파견하여 장래의 전쟁에 대비해서 현지 언어를 습득시키는 한편 정보수집에도 나서게 하였다. 조선에 대한 공작은 중국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규모가 작았지만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경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880년 참모본부는 海津三雄 중위와 수행원을 조선에 파견하는데, 그 목적은 “현재 朝鮮 및 露領沿海州 등의 地誌地圖등을 상세히 하여 유사시 그 參劃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시에 우수한 장교를 선발하여 해당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海津三雄 중위와 별도로 武田甚太郎 등 9명의 어학생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들의 작업이 결국 「朝鮮地誌略」으로 정리된 것이다. 조선 8도를 각각 1권의 책으로 엮은 이 자료는 제목과 달리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의 「日本地誌提要」(1875)의 편성에 따라 서술 항목을 정한(남영우 1992: 87) 이 지지는 필요에 따라 한국의 고문헌, 예컨대 「동국통감」, 「동국문헌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각 지역의 읍지 등을 이용하는 한편으로 현지 답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본의 아시아 문화 연구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은 두고두고 평가를 받게 되었다. 和田清(1943: 24)에 의하면 일본의 동양학은 한학과 불교학을 바탕으로 한 데에 특징이 있으며, “또다른 특색은 일본의 실

정에 적응하여 일어난 것이다. 일본인이 처음 支那나 대륙의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군부"였다. 그의 이 이야기는 한국에도 대체로 적용된다. 일본 군부의 한국 조사는 사실상 청일전쟁 이전에 절정을 이룬다. 兵要地誌도 이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일전쟁을 거쳐 한국이 식민지화 된 다음에도 일본군은 이곳을 敵地로 인정한만큼 식민지의 저항과 무장 독립운동에 대비하여 일종의 적정 정탐으로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정보 조사를 추진했다.

앞서 언급한 참모본부의 海津三雄의 활동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東邦協會가 조선 관계 자료를 모아 펴낸 「東邦叢書 朝鮮彙報」(1893)에 그의 글이 실렸기 때문이다. 그는 참모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십년 이상 지난 뒤에, 공개 가능한 내용을 이 잡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칙령기에 있어서 한국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로는 참모본부 이외에 동방협회를 비롯한 민간 조사단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주체는 해외 진출 또는 칙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협조하며 역할을 분담하였다.

인접 국가의 문화와 해외 사정을 조사, 연구한 단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것은 東京地學協會였다. 1879년 최초의 제국대학 총장을 역임한 渡邊洪基가 榎本武揚, 花房義質의 힘을 얻어 설립한 이 협회는 “지학을 바탕으로 경제, 군사, 기타에 관한 유익한 사건——이를 편찬, 출판하여 공중에 보고”하고 문헌의 수집과 탐방여행을 원조한다고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와 각종 통계와 교통시설, 풍속으로부터 종교와 미술에 이르는 방대한 항목을 제시하고있다. 지학이라는 이름아래 인접국가, 특히 중국과 조선에 대한 체계적 자료수집을 목표로한 이 협회는 「朝鮮全圖」를 간행하였으며, 이 협회의 기관지를 흡수한 「地學雜誌」도 조선을 방문하여 조사한 고트셰(C. Gotsche)의 「朝鮮地質概圖」를 간행하여 기초자료에 대한 노력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 대하여 가장 첨예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진

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상인들이었다. 시장조사를 위한 상인들의 활동은 침략 초기부터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체계화되고 본격화되는 것은 대체로 참모본부의 역할이 일단락되는 청일전쟁 무렵부터다. 한국에 대한 조사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조직은 日韓通商協會였다. 1894년 3월 大島圭介를 회장으로 하여 발족한 이 협회는 “하나의 피아 무역의 매개기관이 되고, 하나는 우리 국운의 융성을 기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경에서 발족하였다. 규약에 의하면 일한통상협회는 “일본과 조선간의 통상사업을 분려,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한의 중간에 서서 통상상쌍방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정을 두텁게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각항 무역, 내지(내륙)행상, 공업, 광업, 어업, 농업, 금융, 운수, 교통의 현황을 연구, 조사한다고 하였다. 동경에 본사를 두고 대판과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 지부를 둔 이 협회는 앞에 제시한 연구, 조사,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상품을 조선에 진출시키는 데에 힘썼다. 그러나 이 협회의 가장 큰 사업은 기관지 발간이었다. 기관지 「日韓通商協會報告」는 1895년 9월에 창간하여 1898년 12월에 제39호로 끝난 듯하다.

일한통상협회나 조선협회가 모두 일본에 있는 일인들의 단체였다고 한다면, 조선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의 단체로는 朝鮮會, 韓國研究會 등이 있어, 이들도 기관지를 간행하며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다. 1900년 천후하여 존재하던 조선회는 기관지「朝鮮月報」를 간행하여 金澤庄三郎, 前間恭作 등 한국 문화 연구가들의 글은 싣고 있었다(櫻井義之 1964: 194). 아울러 1902년 10월에 서울에서 설립된 한국연구회는 월례 연구 담화회를 개최하여 그 기사를 「韓國研究會談話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1902년 9월에 제1호를 내기 시작하여 1905년 7월 제4호로써 끝이 났다(櫻井義之 1964: 193).

韓國研究會는 실업가 大江卓, 竹內綱 등 외교관, 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이에 깊게 간여한 사람에는 幣原坦, 國分象太郎, 鮎貝

房之進, 前間恭作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활발한 연구발표를 한 사람들은 주로 한국 정부에 의해 고용되어 學部 또는 관립학교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본인들의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한 문헌적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주제도 상당히 전문화시켜 학구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런 점에서 일인들의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초기 담당자라 할만하다. 불과 제4호를 내고 끝날 만큼 단명했던 「韓國研究會談話錄」의 내용에는 한일간에 얽힌 시사문제나 생활정보 또 지지나 기행문보다 한국인의 신앙, 학문, 역사, 문학 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 특히 이 기관지의 창간호에는 李重煥의 「八域志」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지지라는 실용적 정보에 대한 요구를 고문헌에 의한 학구적 이해와 접합시키려한 흔적을 살필 수 있다.

군부와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중국에서도 막중하였다. 앞에 언급한 단체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도 크고 조사, 연구의 영역도 넓었던 東亞同文會 또는 東亞同文書院은 한국의 문화나 실태에 관해서도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중국 경제, 산업조사는 일본의 동양학을 위해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그 자체가 학문적 업적이라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들 위한 확고한 기초가 된 것이다. 和田清(1943: 25-26)에 의하면

특히 同文書院에서 양성한 인재가 支那의 현지답사라든가 실태조사 등에 관계한 것은 대단한 일이어서, 요즘 세상에서 支那通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동아동문서원 출신이다. 신문기자, 외교관, 또는 滿鐵 사원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동아동문서원 출신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만주 지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동아동문서원 출신 星武雄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것처럼 군부가 이룬 것, 동아동문서원이 이룬 것은 일본의 동양학이 채 열리기 전에 선구적인 작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일차적으로 군부의 침략과 상인들의 진출을 위하여 기여하였을 것이다. 한국을 조사, 연구한 사람들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학자나 관료, 군인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즉 이른바 ‘內地人’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거주하던 ‘내지인’들은 일본측과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 양측의 관계는 조사, 연구에 반영되는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 거류민 사회에 표현되었다. 한국 내의 일본인 사회는 한국 진출의 식민 통치의 직접적 담당자였다(高崎宗司 1993: 3).

조사자들이 생산하는 정보와 지식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또는 진출하려는 일본의 대중들에게 직접 소비되었다. 또한 대중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 대중의 한국 문화 인식은 다시 조사와 연구에 반영되어 그러한 관념을 강화하게 되었다. 국학적 전통이건 양학적 전통이건 한국 문화를 야만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성된 한국 인식은 한국에 대한 지배, 한국 진출을 부추겼다. 일본 민중의 한국 진출은 명치유신 이후의 국내적 모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해서도 환영할만한 현상이었다.

민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접하기 쉬운 글은 앞에 제시한 군사적 정보에 관한 것도 아니었으며 상당히 학술적인 연구서들도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에 관한 실용적 서적들이 가장 가까운 글이었으며 이 글들은 대체로 한국으로의 渡航을 장려하는 책이거나 한국 생활에 대한 안내서 형태로 간행되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에 관한 인식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이런 글들을 읽고 직접 한국인들 사이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견해였을 것이다. 도항 안내서 등은 주로 이런 사람들의 견해에 의존하였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방약무인한 일본 상인들의 행태를 경고하는 경우도 있지만(梶村秀樹 1974: 89) 대체로 이런 책들은 한국 문화의 야만성을 강조하며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을 권유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생활에 관해 조사하고 이해하여 그들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아가 한국 문화를 개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사명감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무릇 弱國民이 強國民을 사귀고 未開人이 開明人을 접촉함에 있어서는, 약국민, 未開人은 강대국민이자 개명인인 優等人民의 감화를 받는 것은 必然”(日韓通商協會報告, 1985.9: 105)이라는 것이었다.

한국 진출을 권유하는 책자와 이주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각종 案内書는 지방 관청에서 많이 간행되었다. 島根縣 관리들의 「韓國實業調査復命書」(1905)도 이주와 투자를 위한 조사의 결과였다. 島根縣 소속의 기사 菊池惲을 비롯한 6명의 관리는 1905년 5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여 초량, 동래, 구포, 김해, 삼랑진, 밀양, 대구, 서울, 인천, 용산, 개성, 평양, 신의주, 용암포, 진남포, 경이포, 강경, 군산, 목포, 고하도, 영산포, 나주, 마산 등을 거쳐 53일만에 귀국하였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모두 20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행정, 지리, 기후, 인정풍속 및 생활, 위생, 화폐 및 도량형, 운수 교통 및 통신, 관세, 무역, 島根縣 대한무역, 개항지 및 市邑 상황, 공업 및 광업, 농지선정, 경지상황, 소작제도, 토지매매, 농업경영, 농촌상황, 농사경영단체상황으로 내용을 이룬다.

가장 콤팩트하고 널리 보급된 이주 권유, 안내서의 하나가 天野馨의 「朝鮮渡航案内」(1904)였다. 이 책은 한국인의 ‘풍속과 습관’이라는 부분에서 의식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어느 서양인은 조선의 부인이 세탁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 여자는 옷 빨려고 태어난 모양이다”라 하고, 남자가 흰옷을 입는 것을 보고 “조선 남자들은 마누라가 탄생각 못하게 하려고 흰옷을 챙기는 모양이다”라고 했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는 낮고 좁고 지저분한 집을 돼지우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선의 가옥을 보면 모두가

돼지우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국민 일반이 자재가 부족하여 그저 양반들이나 비교적 여유있게 생활할 뿐, 그 아래 사람들은 재산 있는 사람이 전국을 통틀어 셀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집이라 해봤자 雨露를 피할 정도이고…보통 초가집이고 기와집은 관청이든가 도회지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창문이 낮고 작으며 실내는 좁고 구조도 허술하여 어둡고 불결하므로 潔癖있는 일본인은 잠시도 못견딜 터인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기거하고, 담배도 피우며, 한가하면 잠을 잔다. 벽은 진흙으로 바른다. 거기까지는 일본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 놀라운 것은 벽토에 말뚝을 쑤어 바른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그 연고를 물으니 “말뚝을 쑤으면 벽이 단단해져서 흙이 떨어지지 않아서 좋다”고 대답한다. 얼마나 조선인이 더러운 것을 잘 견디는지 이것만 봐도 분명하다.

조선 진출에 관한 관심은 정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수준에서도 널리 나타나서 조선 사회에 대한 조사는 石川縣 농업단체에서도 시도하였다. 石川縣의 경우, 조선 ‘拓殖’을 위한 법인체가 조직되었는데 당시 이주를 장려하는 글(190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韓人은 시계를 갖고 있지 않고…시간약속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부끄러운줄 모른다…아침 일찍 일어나는 방법은 밤마다 잠자기 전에 물을 예닐곱 홉씩 마시고 잠을 자면 오줌이 마려워 눈을 뜨게 되어 일찍 일어나게 된다. …시계 없는 국민의 早起法인 것이다. …賣官의 관리가 인민을 때려 사육을 채운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인이 2백원인가를 바치고 돌아와 벼슬을 하고서 문패에 前議官 아무개라 쓰고 사람들에게 으시댄다.(田中喜男 1968: 133)

이 글은 이어서 한국 민족이 “우리나라의 文化, 文政年間の 사람들의 모습이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웃을 수 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글에 나타나는 편견은 특히 이 시대

즉 청일전쟁 이후에 심하게 나타나며 전문적 연구자들의 글보다 이주를 장려하는 안내서 같은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책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인에 대한 卑下야말로 이주 장려를 위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誘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치유신에 의해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를 이루어 이제 마약 새로운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된 일본 민중에게는 국가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었으며 유럽의 문화보다 덜 개화된 일본 문화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웃에 야만스러운 문화가 있어야 자기네 문화가 돋보였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反射像(川村湊 1993 참조)이었으며, 일본은 '脫亞入歐'의 풍조 속에서 서구사회에 대한 열등감을 조선에 投射하였던 것이다.

시계가 없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자신의 과거, 그것도 갓지난 어제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서 백년전의 자기네 모습을 찾았다. 한국인들은 同時代的 先祖였다. 한국인을 야만시하였지만 적어도 침략기에는 한국인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보는 일도 없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철저한 부정 없이는 한국 침략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이 확고하게 되는 1920년대 이후에야 나타나게 된다.

## 5. 통치체제의 확립과 한국 문화 연구의 진전

### 1) 역사와 문헌연구

1906년 東京帝大 교수 梅謙次郎은 한국정부의 법무 고문으로 부임하여 不動產法調査會를 설치하고 새로운 입법을 위한 慣習法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統監府를 설치하고 한국정부를 장악하여 보호국화 하였다. 한국은 사실상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통감 伊藤博文은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의 최우선 과제는 토지의 상품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법적 보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통감은 일본에서 법전 편찬의 경험이 풍부하고 사적으로 가까운 梅를 초빙한 것이다.

細川嘉六(1972: 221)에 의하면 식민지 경영의 기초공작에는 첫째, 토지조사사업, 둘째, 근대적 교통기관, 즉 운수기구의 건설(철도와 항만), 그리고 세번째로 화폐제도의 통일과 금융기관의 설립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공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연과 사회, 문화에 대한 조사일 것이다. 토지 문제는 사회, 문화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습법 조사도 토지조사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일제의 토지점령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에 관한 새로운 법제와 토지조사,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계 관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나아가 이는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통로였다.

식민지 통치의 경험이 일천한 일본은 유럽 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려 했으며, 가장 노련하고 능률적인 방식은 영국의 간접 통치라고 생각하여 식민지인들의 문화를 대체로 방임하려 한 것이 식민통치 초기의 태도였다. 그러나 식민통치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식민지 문화의 방임이란 현지의 民法이나 商法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식민지 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를 낳았으며, 특히 사법적 규범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통치할 식민지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민지용 法源을 찾기 위해 시도된 작업이 이른바 舊慣調査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관습조사는 단지 식민지를 위해서만 개발된 방법은 아니었다. 식민지에서의 조사에 불과 몇년 앞서 중주국 일본에서도 법령의 성문화화를 위해 민사, 상사 관습에 대한 조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일본의 식민지 연구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중주국에서의 연구

가 식민지로 확장되는 현상이다. 1920년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일본 민속학자들의 연구도 같은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 間接統治와 관련하여 기능주의 인류학에 입각해서 식민지 사회를 연구한 영국과 달리 일본은 문헌에 크게 기대어 식민지 사회를 연구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식민지들이 풍부한 文獻資料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에서의 문헌 연구가 일본의 '東洋學'을 형성해 주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미숙과 동양학의 발달은 모두 독특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경험의 결과일 뿐이다.

새로 확보하게 된 식민지 조선의 사회, 문화에 대한 조사는 조선에 앞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의 사회 문화 조사를 참고로 하여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土地調查事業만 하더라도, 일제는 본토와 臺灣에서의 경험을 이용해서 조선에 시행하였으며(宮嶋博史 1991: 423), 나아가 에집트에 대한 영국의 토지조사 등, 유럽 제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이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에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른 바 舊慣調査에도 대만 총독부가 토지조사와 함께 실시한 구관조사의 경험이 참작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臺灣에서도 '資本主義化的 基礎工事'로서 토지조사사업, 도량형과 화폐의 통일이 '구관조사사업'과 병행되었다(矢內原忠雄 1933: 221).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 구관조사가 시작된 것은 나중에 '文裝的武備'를 주장하는 대만총독부의 민정장관 後藤新平의 주장에서 비롯한다. 대만총독부는 1898년 臨時臺灣土地調查局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 자체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규범과 관행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後藤은 식민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통치의 기본조건임을 인정하고 大內丑之助의 건의를 받아들여 京都大學의 岡松參太郎을 초빙하여 조사를 위촉하였다. 이리하여 1901년에는 대만구관조사회

가 발족되어 私法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자면 청국의 규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 경도대학의 織田萬과 狩野直喜 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바아가 소수민족인 高山族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게 되었다.

일제 통치 당국에 의한 식민지 문화 연구는 대만에서 시작되어 滿洲와 한국으로 확장되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 뿐만 아니라 만주도 식민지화하는 단서를 얻었다. 일제가 만주 통치를 위한 국책회사로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자 이의 총재가 된 것은 後藤이었다. 그가 만주와 華北 지방의 구관을 조사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이 회사의 조사부는 대만 구관조사를 맡았던 경도대학 중심의 그 연구진이었다.

## 2) 사회 문화와 실태조사

대만총독부의 구관조사 경험을 참고로하여 통감부가 설치한 것이 不動產法調査會였다. 이의 뒤를 이은 조선총독부 中樞院은 형식상 일종의 정책 자문기관이지만 그 기능은 오히려 한국인 지배계급에게 地位象徵을 부여하면서, 식민지용 민사법을 준비하고 식민지의 구제도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기관에서는 구한국의 부동산법 조사회에서 비롯하는 관습법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조선왕조의 통치체계를 연구하고 나아가 전통문화 일반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한때 역사편찬까지 수행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문화연구를 위한 통치당국의 중심적 기구가 중추원이었으며, 이는 아시아 연구를 위한 다른 기구들, 즉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調査部나 臺灣總督府의 조사 기관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중추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사, 상사관습에 대한 연구였다. 이른바 구관이라 하면 이 양자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

였다. 구관과 더불어 이 기관이 조사하고자했던 것은 제도와 풍습이었다. 하지만 제도 또는 풍속에 대한 조사는 구관 이해를 위한 부수적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 시대로부터 시작된 민사, 상사 관습 조사는 십년만에 어느 정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성과를 거두어 관습에 관한 조사도 이제는 학구적인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 연구 방향도 당시에 보이는 관습 자체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 기원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었다.

1915년 중추원의 작업방침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방침은 (1) 私法에 관한 관습의 조사를 종결하여 이를 편찬 할 것, (2) 널리 구래의 제도를 조사할 것, (3) 행정 및 일반의 참고가 될 풍속 관습을 조사 편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중추원은 「朝鮮人名辭書」(1937), 「吏讀集成」(1937)편찬 등을 추진하는 한편 朝鮮半島史의 편찬을 서둔다. 문화정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도 식민지 '원주민' 용 민사제도의 마련을 위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교한 통치제도와 효과적인 통치 명령을 얻어 내려는 조사로 발전시키려한 것이다. 이리하여 이른바 제도조사와 풍속조사를 계획하여 중추원의 조사대상은 역사학적인 것에서 사회학적, 인류학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 1921년 중추원은 과거 당대에 걸치는 풍속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25개장으로 된 자세한 조사항목을 설정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중추원에서는 사회실태에 관한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朝鮮社會事情調査와 部落調査가 그것이다. 중추원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 고비에 오른 1919년 통치정책의 자료로서 사회의 실태를 연구할 필요를 느껴 村山智順에 위촉하여 사회사정조사라는 이름으로 5개년 조사계획을 수립시킨 바 있다. 부락조사는 촌락의 생성과 변화를 조사하여 통치자료로 삼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중추원은 1921년 3월, 와세다대학 小田內通敏교수에 위촉하여 이 사업을 시동시켰다.

이무렵 총독부는 일본에서 郷土會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히 민



속을 연구하며 현지 조사를 수행하던 柳田國男에게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를 위촉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柳田이 이를 극력 회피하자 총독부는 이를 小田內에게 맡겼던 듯하다. 근대 일본 민속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柳田은 민속학의 테두리를 넘어서도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일찌기 농정관료로서 한일 합방 추진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었으며 합방과 더불어 시작된 토지조사사업 立案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가 총독부의 제의를 회피한 것은 그의 전력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것이 최근의 주장이기도하다(村井紀 1992: 87).

小田內的 부락조사도 1924년에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세권의 소책자가 나왔을 뿐이다. 그중의 한 책인 「朝鮮部落調査報告」 제1책은 火田民에 관한 보고와 華僑에 관한 보고로 구성되어있다. 화전민에 관해서는 뒤에 善生永助도 조사를 하는데, 善生은 이 조사가 당시 한국에서 화전문제가 시끄럽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수행한 것이라고 하였다(友邦協會 소장 녹음 테이프). 그러나 이에 앞서는 小田內的 조사는 그 과제가 총독부로부터 부여된 것인지 그의 학문적 관심에서 선택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무렵 柳田은 일본 民族과 半族관계를 이루는 '山人'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설정하여 이를 찾으려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권 관념이 없는 산인들의 모습은 현실 세계의 화전민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村井紀 앞책: 26). 그렇다면 한국을 회피한 柳田을 위하여 小田內가 화전민 조사를 대신 수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락조사'를 중단함으로써 중추원과 이에 선행하는 기관들은 식민지 조선에 시행할 민사,상사 관계의 法源을 찾는 일차적 임무와 식민지에 시행할 각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통적 제도를 연구하는 이차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쳤다. 양자가 동일한 기관에 의해 수행된 것은 법원이나 구제도가 모두 옛 문헌의 연구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중추원과 관련된 작업은 植

民地 통치를 위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중추원이 村山智順나 小田內通敏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조사를 맡겼다는 것은 일단 조사 대상과 더불어 조사방법의 전환 또는 확장을 시도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대체로 관념화된 문화로부터 실제적 문화로의 전환이었으며 문헌조사로부터 실태조사로의 확장이었다. 1922년에 조선총독부는 또한 小田內와 같은 대학에 있던 今和次郎으로 하여금 한국의 민가를 조사케한 바 있다. 小田內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속조사를 실시한 郷土會의 멤버였다. 柳田國男등과 함께 이 모임을 조직한 그는 歷史地理學의 관점에서 이른바 郷土研究를 주장한 사람으로 일본 민속학에서 기억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한국에 적용하려 시도한 그는 한국인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연구의 단위로는 일본의 村에 해당하는 面 보다는 里나 洞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학술적'이라고 하였다. 그는 한국에 있어서도 면적이 넓은 면 보다는 洞이나 里 쪽이 "자연적 조건 또는 역사적 사정이 같은 만큼 그 실생활의 연구 단위로는 동이나 이를 잡아야 가장 정확한 재료를 장악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 민속학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향토회가 때마침 일어난 교육계의 향토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그도 이러한 교육적 관심은 식민지 문제에도 적용되었다. 향토교육은 柳田에 의하면 '나라의 良民'을 만들기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

향토회의 회원으로서 小田內와 함께 참가했던 건축학자 今은 조선에서 거의 전적으로 주거를 조사하였다. 그는 柳田 등에게서 民俗學의 영향을 받아 일본 각지의 민가를 조사하는 한편 民族學을 지향하여 세계적 규모에서 비교주거학을 시도하게 되었다. 제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今은 세번째이자 마지막인 조선조사를 하여 「朝鮮半島의 勞務者住宅을 보는 旅行」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는 첫 번째 조사를 하던 1922년 가을 한달 동안 서울, 평양 일대, 개성, 함흥 일대, 전주, 김천, 대구와 경주의 주택을 둘러보았다. 그는 상류층의 주

택에서 “고요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찾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의 집에서도 단순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하류인들의 집, 내지 일반 민중의 집은(조선에는 양반이라는 귀족 내지 士族의 집이 각지에 있다. 그들의 집은 기와집인데 장식적인 외관을 가진 저택의 열개를 이루고 있다. 그것들에 대하여 실로 다수의 민중은 극히 작은 집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 온 외래자들, 여행자들의 인상기에 ‘돼지우리’라고 비평되는데, 조금 들어가면 ‘움츠려든 정신의 표현’이라 불리운다. 나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보러 다녔다. 그런데 그런 집들의 내부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실제로 깨끗이 치워 있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끝까지 최초의 인상은 배반당하지 않았다. …이런 집들의 내부의 청결은 첫째로 온돌에서 오는 것 같다. 청결은 그 복장에서도 현저히 나타난다. …특히 빈민굴에서 나는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의 아름다움을(今和次郎 1924: 3-4).

한국인의 의복과 주택을 보는 눈,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보는今の 시각은 앞에 제시한 「朝鮮渡航案内」에 나타난 天野의 그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그러나 天野로부터 今으로의 변화가 그동안 있었던 식민지의 생활, 식민지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까. 양자 사이의 차이는 한국이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어 토지조사사업에 시달리고나서 일제에 거족적 저항을 시도하는 동안 겪었던 문화변동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일제측에서 보자면 이 기간은 저항을 진압하면서 식민지화 작업을 완결하는 기간이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 변화가 今에게서 나타나는 시각을 초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베마난자라(Rabemananjara)의 이야기처럼 흑인이 야만인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백인이 흑인을 야만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다(Leclerc 1972:185-86). 한국인이 야만인을 면하게 된 것은 일본인이 한국인을 야만시함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라면 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식민지 농민과 도시 빈민의 주택에 대한今の 시선은 우리들로 하여금 柳宗悅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상 柳와 今, 그리고 小田內와 한국 도자기 연구자 淺川巧 등은 함께 답사를 다닐 정도로 의기투합되는 사이였다. 小田內와 今은 한국에 온 1922년 초가을에 바로 경기도 광주군의 分院窯의 자취를 찾아 나선 것이다(高崎宗司 1982: 111). 특히 柳에게서 잘 나타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적 태도, 그리고 식민지 민중에 대한 연민어린 눈길은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小田內의 글도 이러한 시각 밑에 깔려있는 정치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조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열명에 아홉명은 정치문제에 열광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조선민족을 위해 참으로 이를 슬프게 생각한다. 나는 냉정하고 순수한 학도의 입장에서 특히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일은, 참으로 조선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왜 경제적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하여 어떻게 그들 민족의 근본적 활력을 배양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선의 정치에 정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조선의 지방생활 특히 경제생활의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小田內通敏 1927: 210-11).

이른바 민족말살정책의 한 형태인 同化主義나 內地延長主義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민족중심주의와 식민지 문화에 대한 野蠻觀에서 벗어난 이들의 시각은 침략기나 식민지 통치체제 확립기의 그것들에 비하여 한결음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실험된 연구 방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려는 관점, 그러니까 일종의 學問的 '內地延長主義'에 입각하여 한국의 문화와 사회의 실태를 연구한 오다우찌와 곤의 실태조사는 곧 막을 내리고 善生永助의 식민지 사회 실태 조사에 의해 대치되었다. 1923년 중추원에서 계획했던 부락조사 조사항목들은 같은 해부터 총독부의 촉탁

이 된 善生永助에 의해 조사되고 집필되어 「朝鮮總督府調査資料」로서 간행되었다. 早稻田 대학 출신으로서 大陸浪人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는 1923년 7월 일본에서 건너와 12년간 총독부 촉탁으로 일하면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小田內와今으로부터 善生으로의 교체는 총독부의 능률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善生은 실로 많은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부임하던 1924년에 일본의 한국인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朝鮮의 市場」을 내놓은 그는 1926년 한해에만도 「市街地の商圏」, 「火田の現狀」, 「朝鮮의 契」, 「朝鮮의 窯業」 등 네권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결국 총독부가 기대한 것은 조선 사회와 문화의 기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아니라 당장의 통치를 위한 정량성 지향적인 기초자료였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대한 평가도 학문적인 깊이라든가 자료 해석에 있어서의 통찰력보다는 수량으로 나타나는, 일정 기간에 발표해낼 수 있는 보고서의 卷數와 페이지數였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문화의 실태조사를 위해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한 小田內와今이 총독부로부터 해촉되는 것은 총독부의 능률주의나 실적주의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각이 총독부의 그것으로부터 어긋나있기 때문이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善生은 小田內의 학문적 역할을 대행할 수 없었다. 그러한 역할은 결국 京城帝國大學이라는 식민지 아카데미의 학자들이 뒤를 잇게 된다. 문헌 연구와 더불어 또하나의 식민지 문화 연구 전통을 이루는 실지조사 전통은 鳥居龍藏 이래 小田內와今에 의해 가능성을 보였지만 善生에 의해 통치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로 치닫게 되고 한편으로는 秋葉隆나 鈴木榮太郎등의 식민지 학자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秋葉은 말리노우스키나 라드클리프브라운 식의 構造機能主義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자료를 해석하려고 하였다. “샤마니즘이라는 사회현상을 조선의 전체적 사회구조 속에서 포착하여 그 사회적

의의를 밝히고, 방법적으로는 현지조사에 의한 深化的인 사회학적 방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음미”하려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이러한 자료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글에서 구조기능주의의 요체라할 수 있는 總體論的 설명방법은 성공되지 못한 것이다.

흔히 鈴木의 업적을 일본의 식민지 사회, 문화 연구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한다. 그의 업적의 중심점은 韓國의 마을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다. 그는 일본 농촌에 관한 자신의 사회학적 연구 방법을 식민지 조선에 연장시켜 적용하였다. 그는 현지조사 결과 일본 농촌의 村에 해당하는 조선 사회의 기본단위가 전통사회의 洞임을 확인하였다. 전통적 마을이 기본적 공동체라는 것에서 그의 학문적 논의는 출발한다. 그러나 촌락단위의 존재와 중요성은 앞서 말한 小田內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었다. 鈴木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연구와 실용성을 추구한 조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6. 結 語

구미 열강의 압력 앞에 굴복하여 개국한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즉각적으로 제국주의를 채택한 다음 열강에게 당한 바를 한국에 전가하고, 이로써 한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다. 交隣 관계를 유지하던 두 나라는 침략국과 침략 대상국으로 나뉘고, 노일전쟁의 결과는 두 나라를 종주국과 식민지로 대극화 시켰다. 침략기를 거치는 동안 일제측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획득했다. 이 시기 일제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한국의 지리와 시장에 관한 정보와 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이었다. 막부시대에 축적된 지식과 대마도에 전해지는 지식, 그리

고 유럽측의 자료에서 출발한 일제는 참모본부의 지지 조사와 상인들의 시장 조사를 통해 실용적 정보를 획득하지만 청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만을 식민지로 점령하던 이 무렵에는 침략적인 여러 단체들이 일종의 지역 연구에 나서게 되어 한국 문화 연구도 심도를 높이게 되며 차츰 역사 지향성을 보이게 된다.

역사 지향성 또는 문헌연구에 대한 경사는 노일전쟁으로 한국이 사실상의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시작된 舊慣調査를 통하여 더욱 강하게 관철된다. 대만총독부의 경험을 살려, 토지침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과 병행된 이 구관조사는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중추원으로 인계되어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한 관습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추원은 이 시기에 통치 제도 확립과 식민지용 법제를 위한 자료 수집에서 나아가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역사 연구로 나아감으로써 臺灣總督府, 滿鐵調査部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 연구의 한 중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문헌, 또는 역사주의는 일본의 '東洋學'이 보편성을 포기한 채 특수성 연구에 갇히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한 네덜란드의 아시아 연구가 관습법(adatrecht)에서 출발하여 구조주의에 이른 것(de Jong 1980 참조)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식민지들이 이른바 同文之邦이다보니 문화 연구도 문헌에 구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문자를 쓰는 나라, 또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민족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실험된 방법을 식민지에 적용하는 경향을 만들기도 하였다. 근대적 법제를 위한 관습 조사도 그러했지만 이런 경향은 1920년대에 와서 두드러졌다. 거대한 식민지 민중의 저항에 부딪힌 중추원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에서 실태 조사로 전회하며, 여기에 참가한 小田內通敏과 今和次郎 등은 일본의 민족학이 본국에서 시행한 조사 방법을 식민지에 적용한 것이다. 이들은 柳宗悅類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보아,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해 가고 있었다. 그러

나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애써 회피한 채, 두 사람 뒤에 있던 柳田國男의 한국 인식과 그가 꿈꾸는 ‘아시아 連帶’, 同化를 통한 가상의 공동체 실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인식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식민지 문화 인식이다. 전문가의 인식은 대중에게 전파되고 대중의 그것은 전문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를 통하여 일본인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한국인 야만인관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일본 국내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한 사람도 적지 않았고 군국주의에 희생된 민중도 많았지만 구체적 식민지 침략과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명치유신 이후의 국민 통합은 이러한 식민주의에 힘입은 바 컸다. 침략과 멸시는 제국의 팽창과 비례하였으며 이는 종주국 국민의 환상적 영광과 함께하였다.

일본의 대중들 뿐만 아니라 柳田國男에게도 제국의 영토 안에 야만인 또는 ‘山人’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다. 종주국민의 영광은 비참한 식민지가 존재함으로써 더욱 빛날 수 있으며, 제국의 문명개화는 식민지의 미개, 야만이 있어야 쉽게 확인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도 「밀림의 왕자」라는 제목의 번안물을 통하여 당시 소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少年王者」(山川惣治 작)는 미국인 버로우즈(E.R. Buroughs)의 타잔 시리즈를 모방하여 일본 소년을 주인공으로 새운 것이었다. 마사이 족의 민족지적 지식을 깔고있는 이 일본 만화가 배경으로 택한 곳이 그래도 한국 아닌 아프리카인 것은 한국이 동문지방이기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남영우

1992 '日本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現代地圖의 作成 過程', 「문화역사지리」, 제 4 호.

朴賢洙

1998 '日本の 朝鮮地圖와 植民主義' 「韓國의 옛 地圖」(자료편), 대구: 영남대학교.

加藤周一・丸山眞男(編)

1991 翻譯의 思想 「日本近代思想大系 15」, 東京: 岩波書店.

家永三郎

1979 「日本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東京: 高麗書林.

高崎宗司

1982 「朝鮮の土となつた日本人」 東京: 草風館.

1993 “在朝日本人と日清戦争.” 「岩波講座」近代日本 植民地3」, 東京: 岩波書店

金澤庄三郎

1913 「言語の研究と古代文化」, 東京: 弘道館.

今和次郎

1924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第 1 冊(民家), 京城: 朝鮮總督府.

1971 「今和次郎集 2」 民家論, 東京: ドメス出版.

76 박현수

旗田巍

1969「日本人の朝鮮觀」. 東京: 頸草.

藤村道生

1973「日清戰爭」. 東京: 岩波書店.

梶村秀樹

1974“植民地と日本人”「日本生活文化史 8」. 東京: 河出書房新社.

山本芳明

1991「社會平權論」「日本近代思想大示: 翻譯の思想」東京: 岩波書店.

山田昭次

1970「征韓論・自由民權論・文明開化論」.「朝鮮史研究會論文集」7.

善生永助

1935「朝鮮經濟關係著書論文目錄」(未刊行 印刷物).

小田內通敏

1927「聚落と地理」. 東京: 古今書院.

矢島祐利・野村兼太郎(編)

1979「明治文化史 學術」5. 東京: 原書房.

櫻井義之

1964「明治と朝鮮」. 東京: 櫻井義之先生還曆紀念會.

田中喜男

1960「明治後期朝鮮拓殖への地方的關心」.「朝鮮史研究會論文集」4.

井上清

1965「日本の歴史」中,下. 東京: 岩波書店.

1968“日本の朝鮮侵略と帝國主義”「朝鮮史研究會論文集」5.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川村湊

- 1993 “大衆オリエンタリズムとアジア認識”.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7」. 東京: 岩波書店.

村井紀

- 199 「南島イデオロギーの發生」東京: 福武書店.

村上勝彦

- 1981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 「朝鮮地誌略」 1. 復刻版. 東京: 龍溪書舎.

和田清

- 1943 “我が國における東洋學” 「亞細亞研究」 12月.

de Jong, P.E. de Josselin

- 1980 “The Netherlands: Structuralism before Levi-Strauss” in Diamond, S.(ed) *Anthropology: Ancestors and Heirs*. The Hague: Mouton.

Leclerc, G.

- 1972 *Anthropologie et colonialisme*. (宮治一雄 外譯「人類學と植民主義」. 東京: 平凡社.)

Nakane, Ch.

- 1980 “Japan: An Asian reflex” in Diamond, S. (ed) *Anthropology: Ancestors and Heirs*. The Hague: Mouton